

글로벌 동향 및
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

2018.10.12.(금) 08:00
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10. 12.

금 융 위 원 회

1. 금융시장 현황

□ 어제 우리 코스피, 코스닥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

* 코스피 : $\Delta 4.44\%$ ($\Delta 98.9\text{pt}$), 코스닥 : $\Delta 5.37\%$ ($\Delta 40.1\text{pt}$)

○ 코스피는 최근 7년 만에*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,
외국인 순매도액이 4,867억원을 기록했음

* 이전 최대 낙폭 : '11.11.10일 $\Delta 4.94\%$ 하락
(유로존 재정위기 당시, 이탈리아 디폴트 우려로 글로벌 증시 하락조정)

□ 이처럼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한 것은
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*한 것이 크게 작용했는데,

* 10.10일 넷플릭스($\Delta 8.38\%$), 아마존($\Delta 6.15\%$), 구글($\Delta 4.63\%$) 등 기술주
중심으로 큰 폭 하락 (다우 : $\Delta 3.15\%$, 나스닥 : $\Delta 4.08\%$)

○ 이는 ①미국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전망,
②美·中무역분쟁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 우려,
③美증시를 이끌던 IT기업에 대한 부정적 실적전망 등이
겹쳐진 결과라고 평가됨

○ 또한, 시장에서는
미국 경기의 역대 최장기간 확장('09.6월 이후 113개월째)에 따른
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

□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서
유럽과 아시아 등의 증시가 동반 하락했음

○ 특히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
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는데,

* (中) $\Delta 5.22\%$, (韓) $\Delta 4.44\%$, (日) $\Delta 3.89\%$, (인도) $\Delta 2.19\%$,

○ 이는 무역분쟁의 당사국인 중국과,
중국과 무역량이 많은 한국이
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
2. 우리 경제여건

□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
한국의 대내외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함

- 우선, 대외건전성 측면에서,
세계 8위 수준의 외환보유고*를 유지하고 있고
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**도 큰 폭 감소함

* 외환보유액 : ('08년말) 2,012억 달러 → ('18.9월) 4,030억 달러

**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: ('08년말) 74% → ('18.6월) 31.3%

- 경상수지도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,
재정건전성* 측면에서도
다른 국가 대비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음

* 정부부채/GDP ('17년^e) : (선진국) 103.4%, (신흥국) 48.6%, (韓) 39.5%

- 또한 은행부문의 단기외화차입비중이 크게 낮아졌고,
외환건전성 지표도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

3. 대응 방향

□ 이러한 튼튼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
미국 금리인상, 무역분쟁 확산 우려,
대내외 건전성이 불안한 일부 신흥국 문제 등
외생적인 요인에 따라
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

□ 그러나 과거에도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
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았지만

- 대내외 건전성이 좋은 우리나라의 경우
다른 신흥국에 비해
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영향이 적었음
- 따라서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충분히 대비한다면
외부 충격이 와도
한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
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음

- ❶ 우선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
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상*되면서
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**했음

* 파월 연준 의장, "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" (10.3.)

** 美국채(10y) : (8월말) 2.86% → (9월말) 3.06% → (10.10일) 3.16%

- 이는 내외금리차의 역전 폭을 확대시키고
환율상승으로 이어져
대내외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 위주로
외국인 채권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
- 우리나라는 외국인 채권자금 중 상당부분을
중앙은행·국부펀드 등 안정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
공공부문 투자자가 보유중이며,
- 아직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를 함께 고려한
차익거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
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

* 韓 채권금리 - 美채권금리 = - 0.63% > 스왑레이트 = - 1.04% (3개월물, 10.10일)

- ② 다만, 최근 프로그램 매매나 패시브펀드로 인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외국인 자금이 빠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,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을 철저히 체크해야 할 것임

□ 향후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

시장변화에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음

- 먼저,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음

- 채권·주식·외환시장 추이와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글로벌 자금이동 등 시장동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

- 특히, 우리나라와 비교적 밀접하게 연계된 중국 및 아시아 신흥국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음

- 기재부, 한은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

- 이와 함께 既 마련된 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신속·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음

□ 또한,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하여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

- 특히,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비은행권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

-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리방안을 도출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음